

#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에 대한 연구

## An Analysis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Needs of Hearing Impaired College Students

장보성 (Bo Seong Jang)\*

### 초 록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설문조사와 면접을 실시, 총 15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데이터를 빈도분석, 교차검증, t-검증,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각장애 대학생의 성별, 학년, 장애등급, 출신학교, 학과, 사용 보장구에 따라 도서관 이용행태(정보수집의 어려움, 도서관 이용횟수,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청각장애 대학생의 사용 보장구의 종류, 출신학교, 장애등급에 따른 정보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용 보장구에 따른 정보요구(최신 자료 확충, 이용자 교육홍보, 수화통역사, 홈페이지 개선, 열람환경개선)는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출신학교에 따른 정보요구(이용자 교육홍보, 수화통역사 배치)와 장애등급에 따른 정보요구(이용자 교육홍보, 열람환경 개선)에서도 일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ABSTRACT

This study looks into how hearing-impaired college students use libraries and what their information needs are in order to prepare basic materials which would be applied for developing a library service program and others proper enough to be used by the hearing-impaired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e study gathered data from a total of 155 hearing-impaired college students through a survey and interviews and a frequency analysis, a cross validation, a t-test and a one-way ANOVA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At the end of its research,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hearing-impaired college students' gender, years, degrees of disability, schools, specialties and prosthetic appliances would mak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w the students use the libraries. In addition, the study took a look into differences in the hearing-impaired college students' information needs caused by types of the students' prosthetic appliances, schools and degrees of disability and found out that these types of the prosthetic appliances the students use would significantly affect every category of their information needs. The study now also understands that both the schools and the degrees of disability would mak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 few categories of the information needs, and the former influences education and promotion targeting users and arrange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while the latter affects education and promotion targeting users and improvements in browsing environments.

키워드: 청각장애, 장애인, 장애대학생, 정보요구, 이용행태, 청각장애 대학생  
students with disabilities, hearing impaired, deaf, information nee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개발과 사무관(club301@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2015년 3월 16일 ■ 최초심사일자: 2015년 3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15년 3월 23일  
■ 정보관리학회지, 32(1), 297-316,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1.297]

## 1. 서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국내 ‘헌법(제11조)’과 ‘문화예술진흥법(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 어떤 조건도 차별적 장애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소외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집단은 ‘의사소통 장애인’이다. 청각장애는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언어의 이해와 개념 파악이 취약하며, 정보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타 장애보다 ‘중증장애’라고 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8, p. 9).

일반아동들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말하기와 언어 기술들이 발달하며,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말과 언어의 발달이 그 시기에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말과 언어의 발달 지체는 청각장애 아동으로 하여금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에 걸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청각장애는 ‘듣기장애’라는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고, 듣기장애는 언어습득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언어장애로 발전함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기간 동안 습득해야 하는 교과 지식 학습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성인이 된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도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며 그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대부분 자료가 문자적 정보 형태를 띠고 있는 현재의 도서관 정보환경은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한 요소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청각장애인은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 대상이므로 청각장애인이라는 낮은

이용자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준비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3, p. 1).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 청력 손실에 의한 언어발달 지체로 외부 정보를 요구하거나 탐색, 사서와의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도서관을 활용한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신장과 독서를 통한 언어능력 향상, 정보를 매개체로 한 사서와의 의사소통 등은 인성교육과 더불어 자연스런 구어를 습득하고 문어 표현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행태와 그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학업과정과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가 무엇이고, 그러한 정보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청각장애 대학생의 성별, 학년, 장애등급, 출신 학교, 학과(계열), 청각 보장구 종류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추구행태를 이해함으로써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보다 나은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획득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청각장애’ 개념 정의 및 현황

청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청력손실의 유형, 원인, 정도를 언

급할 때 청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전적 정의로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聽覺障礙]란, 외이로부터 대뇌에서 소리를 이해하기까지의 청각 경로에 장애를 입어 주로 듣기가 어려운 장애이다. 청각 경로의 어느 부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듣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청각장애라고 한다. 외이에서 중이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을 경우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내이와 청신경계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한다. 청각의 감도에 따라 난청과 농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농과 난청을 모두 포괄하여 청각장애로 일컫는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p. 54).

법률적 개념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청력장애, 평행기능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청각장애를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말하기언어듣기협회(ASHA,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생리적 청각 시스템의 결손에 의한 청각 손실의 결과이며 청력손실은 청력 손실의 유형, 청력 손실의 정도 및 청력 손실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세계 인구의 5% 이상(3억 6천만명)이 청력 손실이 있으며 성인의 경우 40dB, 아동의 경우 30dB 이상 잃은 경우 청각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청각장애는 청각보조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각에 의한 언어정보의 처리가 매우 어려워 교육수행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윤중오, 김민정, 2013; 김영옥, 2009; Moores, 1996).

청각장애의 정도는 관점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단계 구분이 있다.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특정 강도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농(deaf)으로, 그보다 청력손실의 정도가 양호한 경우를 난청(hard ofhearing)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90dB 이하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난청으로, 91dB 이상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농으로 구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p.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등급은 2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2014년 장애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각·언어장애 등록 장애인 수는 273,229명이다. 이 수치는 전체 장애인 등록인구 대비 10.9%이며, 2004년 155,382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따라서 청각·언어장애인의 농문화가 발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 습득 경로와 방법, 만족도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요구 분석과 정보이용행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장애유형별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유율을 조사한 <표 2>의 연구결과는 언어·

〈표 1〉 전국장애인 연도별·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장애인	1,610,994	1,789,443	1,967,326	2,104,889	2,246,965
청각·언어장애	155,382	175,587	205,155	218,206	238,560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장애인	2,429,547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청각·언어장애	262,050	277,610	278,530	276,332	273,229

〈표 2〉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및 스마트폰 보유율

(단위: %)

장애유형별	인터넷 이용률	스마트폰 보유율	비고
지체장애	60.4	44.6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스마트폰 활용 비중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의 일반국민 대비 수준을 의미
뇌병변장애	44.3	21.6	
시각장애	49.4	33.3	
청각/언어장애	53.8	35.5	

청각장애인들이 타 장애인들에 비해 정보요구 활동의 특성과 상대적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4).

〈표 2〉와 같이 청각장애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보다 높았으며, 지체장애보다 낮다. 스마트폰 보유율 역시 동일하다. 즉 청각장애인들은 타 장애인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요구 및 정보 탐색·활용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 2.2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우리나라에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는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 시행으로 문이 개방되었고, 장애학생들의 입학허가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진학률도 2009년 44.8%, 2011년 45.3%, 2013년 45.8%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옥정달, 박정식, 2013).

언어·청각장애인은 타 장애인들에 비해 무학의 비율이 높다. 〈표 3〉과 같이 2011년을 기준으로 청각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보면, '초등학교' 37.4%, '무학' 19.7%, '중학교' 17.1%, '고등학교' 15.5%, '대학이상'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의 무학비율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따라서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및 정보활용 교육 등 평생학습과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05년도부터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장애대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옥정달, 박정식, 2014; 박정식, 2013).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교육부의 학습지원 대책은 속기사 및 수화통역사 등 도우미 25명 이상을 파견하여 청각장애(2~3급) 대학

〈표 3〉 청각장애인의 교육수준

(단위: %)

구 분	전 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 체	100.0	11.8	32.9	18.3	25.0	12.0
청 각	100.0	19.7	37.4	17.1	15.5	10.4
언 어	100.0	8.7	31.6	15.9	28.3	15.6

생이 강의실 등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강의내용을 원격 지원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 대학생들을 위한 통역지원서비스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교에서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자통역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타이핑이 빠른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 2.3 선행연구

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의 복지, 의사소통, 학습능력, 의학적 장애요인 및 인지능력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옥정달(2005)은 국내 청각장애관련 주요연구 동향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실험연구, 조사연구, 문헌연구, 질적연구 순으로, 연구대상자는 학령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연구주제는 언어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지만, 교육과정과 진로에 관한 연구, 학생들의 학업능력향상과 졸업 후 진로지도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 분야에서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 방안 연구(2012)’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연구(2013)’를 수행하였다. 두 편의 연구보고서는 국가도서관에서 수행한 청각장애인 관련 도서관서비스 연구보고서이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서비스 운영 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준우(2009)는 청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각장애인들이 정보접근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문제, 대체자료의 부족, 비장애인의 이해 부족을 어려워하며, 이를 위해 청각장애인 전용 공간의 확보,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수화통역사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조혜전과 정연경(2012)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청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지침 개선 방안으로 편의시설의 종류와 시설의 편의성, 장서구축 목록, 의사소통방법, 보조공학기기, 웹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인력자원 개발, 유관기관 협력관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윤희윤(2013)은 도서관이라면 장애학생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증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포함한 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 조사한 결과,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공간서비스, 직접적 및 간접적 서

비스, 총체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망사항을 분석하고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주요 도서관 단체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0)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가이드라인(제2판)'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인력, 커뮤니케이션, 장서, 서비스, 프로그램·마케팅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자에게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와 도서관의 청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수준과 질을 평가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6)는 IFLA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제1판, 1991)을 활용하여 자국 내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수정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연령별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와타나베 오사무(渡辺 修), 2012).

이상과 같이 도서관 분야의 청각장애인 대상 연구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침 연구와 청각장애인들의 일반적인 도서관서비스 요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이라는 학습이 중요시 되는 집단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실증적인 도서관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 3. 연구 설계

####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국·내외 문헌 및 논문 분석으로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증조사의 방법으로 이론적 탐색을 통해 마련된 분석틀을 가지고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문 항목의 내용 및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 문해력이 약한 청각장애 대학생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방식 등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소프트웨어인 IBM SPSS 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 표준편차,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실증조사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 인터뷰(FGI) 및 청각 장애대학생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양적 연구에서 파악하기 힘든 보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 3.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정보수집 시 어려움의 정도와 차이, 도서관 이용 횟수의 차이, 도서관 이용 목적의 차이, 업무활동에 있어서 도서관의 중요도, 도서관 자료 이용 시 만족도, 희망하는 도서관 서비스 요구 등에서 유의한 차이 검증하기 위한 가설 1~4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청

〈표 4〉 연구 가설

번호	구분	연구 가설		
가설 1	도서관 이용행태에 대한 가설	청각장애대학생의 성별, 학년, 장애등급, 출신학교, 학과, 보장구종류에 따라	정보수집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도서관 이용 횟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도서관 이용 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정보요구에 대한 가설	청각장애대학생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종류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정보요구(최신자료 확충, 수화통역사 배치, 청각장애학생의 이용자 교육 및 홍보, 사이트 개선, 열람환경개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 학교에 따라
가설 7				청각장애대학생의 장애등급에 따라

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정보요구를 파악하고자 학업수행 및 일상생활 과정에 청각장애 대학생의 정보요구는 무엇이고, 장애등급, 출신학교(농학교, 일반학교), 보장구종류(보청기, 인공와우 미착용)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위한 가설 5~7을 설정하였다(〈표 4〉 참조).

### 3.3 변인의 설정 및 표본 선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표 5〉와 같다. 이 연구는 학업수행과 도서관 이용과정에 있어서 청각장애 대학생의 정보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장애등급, 출신학

교, 학과, 보장구종류(보청기, 인공와우 미착용)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종속변인으로는 정보수집 시 어려움, 도서관 이용 횟수의 차이, 도서관 이용 목적의 차이, 학업 및 일상활동에 있어서 도서관의 중요도 및 만족도, 희망하는 도서관 서비스 요구 등 6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표본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 779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0년 창립되었다. 연합회는 농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부족과 편견으로 차별받던 농아대학생들이 올바른 대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결성되었다.

〈표 5〉 독립변인 및 종속 변인

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1. 성별	1. 정보 수집 시 어려움
2. 학년	2. 도서관 이용 횟수의 차이
3. 장애등급	3. 도서관 이용 목적의 차이
4. 출신학교	4. 학업·일상생활활동에 있어서 도서관의 중요도
5. 학과	5. 도서관 (자료)이용 시 만족도
6. 보장구종류	6. 희망하는 도서관 서비스

〈표 6〉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질문 항목	질문 내용	문항 수
일반사항	성별	1문항
	학년	1문항
	장애등급	1문항
	출신학교	1문항
	학과(대학원 포함)	1문항
	보장구종류	1문항
정보요구	학업수행,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정보 유형	1문항
	정보 요구 및 수집 행태	1문항
	정보요구의 장애요인	1문항
정보수집	정보수집의 장애요인	1문항
	정보수집 결과에 대한 만족도	1문항
	선호하는 정보원	1문항
도서관서비스 만족도	도서관 이용 빈도	1문항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문항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빈도	1문항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문항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경험	1문항
	선호하는 도서관자료 유형	1문항
	희망하는 도서관 서비스	1문항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1문항	

### 3.4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질문 문항은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분야별 정보이용행태 연구와 청각장애 대학생의 면담을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의 특성을 나타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사전조사를 거쳐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2014년 9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농아대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55부(회수율 77.5%)이며, 응답이 부실한 15를 제외한 총 1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6〉 참조).

설문조사 후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보다 실

직적인 도서관 정보서비스 및 전략적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청각장애 대학생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7〉과 같으며, 참여 대상자의 수는 155명이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장애등급, 출신학교, 학과, 청각보장구 중

류를 조사하였다.

〈표 7〉과 같이 조사대상 청각장애 대학생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4학년이 3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장애등급은 2등급이 75%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출신학교는 농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출신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최근 통합교육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재학 학과는 행정·상경계열과 예술·체육

계열이 비교적 높았다. 보장구 종류는 보청기 착용과 인공와우 수술비율이 비슷하였다.

추가적으로 〈표 8〉과 같이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화를 사용하는 비율보다 구화를 사용하는 대학생이 조금 많았으며, 의사소통보조기기, 필담, 몸짓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자	60명(42.9%)
	여자	80명(57.1%)
학년	1학년	20명(14.3%)
	2학년	35명(25.0%)
	3학년	20명(14.3%)
	4학년	50명(35.7%)
	대학원이상	15명(10.7%)
장애등급	2등급	105명(75.0%)
	3등급	25명(17.9%)
	4등급	10명(7.1%)
출신학교	농학교	50명(35.7%)
	일반학교	90명(64.3%)
학과 (대학원 포함)	인문사회계열	40명(28.6%)
	사범계열	5명(3.6%)
	공대, 자연계열	25명(17.9%)
	행정, 상경계열	30명(21.4%)
	예술, 체육계열	40명(28.6%)
보장구종류	보청기	45명(32.1%)
	인공와우	55명(39.3%)
	보청기, 인공와우 모두 미착용	40명(26.6%)

〈표 8〉 조사대상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 수단

	거의 미활용	활용하지 않은 편	활용하는 편	자주 활용
수화	50명(35.7%)	10명(7.1%)	30명(21.4%)	50명(35.7%)
구화(말)	15명(10.7%)	10명(7.1%)	50명(35.7%)	65명(46.4%)
필담(글쓰기)	5명(3.6%)	50명(35.7%)	60명(42.9%)	25명(17.9%)
몸짓(제스처)	25명(17.9%)	25명(17.9%)	75명(53.6%)	15명(10.7%)
의사소통보조기기	60명(42.9%)	10명(7.1%)	40명(28.6%)	30명(21.4%)

## 4.2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결과

4.2.1 청각장애 대학생의 정보수집 어려움  
먼저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정보수집의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와 같이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정보수집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출신학교, 장애등급, 보장구에 따라 분류하였다. 농학교 출신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20명(14.3%), 정보 제공처 모름이 10명(7.1%), 정보기술 능력 부족이 10명(7.1%)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교 출신자는 주변의 정보원 부족이 25명(17.9%), 의사소통의 부족이 20명(14.3%), 정보기술 및 능력부족이 20명(14.3%)으로 나타나  $\chi^2=26.444$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장애등급별 정보수집이 어려운 이유를 보면 2급은 정보기술 및 능력부족이 35명(25%), 의

사소통의 어려움이 30명(21.4%), 주변의 정보원 부족이 20명(14.3%)순으로 나타났고, 3급은 정보를 찾을 시간 부족이 10명(7.1%), 주변의 정보원 부족이 10명(7.1%),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5명(3.6%)순으로 나타났고, 4급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 제공처 모름이 각 5명(3.6%)으로 나타나  $\chi^2=86.9174$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추가적인 면담결과,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2급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하여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해당 프로그램 운영 시 수화통역을 지원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장벽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장구별 정보수집이 어려운 이유를 보면 보청기 착용자는 주변의 정보원 부족이 15명(10.7%),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10명(7.1%), 정보를 찾을 시간 부족이 10명(7.1%) 순으로 나타났고, 인공와우 수술자는 정보기술능력 부족이 15명(10.7%),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15명(10.7%) 등의

<표 9>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정보수집의 어려운 이유

(단위: 명)

정보수집의 어려운 이유		정보 제공처 모름	주변의 정보원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보기술 및 능력 부족	정보를 찾을 시간 부족	정보수집 관련 비용 문제	$\chi^2(p)$
출신학교	농학교	10(7.1%)	5(3.6%)	20(14.3%)	15(10.7%)	0(0%)	0(0%)	26.444 (.000)
	일반학교	5(3.6%)	25(17.9%)	20(14.3%)	20(14.3%)	10(7.1%)	10(7.1%)	
	계	15	30	40	35	10	10	
장애등급	2급	10(7.1%)	20(14.3%)	30(21.4%)	35(25%)	0(0%)	10(7.1%)	86.917 (.000)
	3급	0(0%)	10(7.1%)	5(3.6%)	0(0%)	10(7.1%)	0(0%)	
	4급	5(3.6%)	0(0%)	5(3.6%)	0(0%)	0(0%)	0(0%)	
	계	15	30	40	35	10	10	
보장구	보청기	0(0%)	15(10.7%)	10(7.1%)	5(3.6%)	10(7.1%)	5(3.6%)	45.660 (.000)
	인공와우	10(7.1%)	10(7.1%)	15(10.7%)	15(10.7%)	0(0%)	5(3.6%)	
	보장구 미사용	5(3.6%)	5(3.6%)	15(10.7%)	15(10.7%)	0(0%)	0(0%)	
	계	15	30	40	35	10	10	

순으로 나타났다. 보장구 미착용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기술 및 능력 부족이 각 15명(10.7%), 정보 제공처 모름이 5명(3.6%) 순으로 나타나  $\chi^2=45.660,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4.2.2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 횟수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과 같이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횟수에 대해서 출신학교별 분류를 보면 농학교 출신자는 1주일에 1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이하가 각 15명(10.7%)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일반학교 출신자는 한 달에 2~3회가 40명(28.6%), 1주일에 1회가 20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chi^2=14.500,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일반학교 출신 청각장애 대학생이 농학교 출신 청각장애 대학생보다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빈도가 낮은 농학교 출신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장애등급별 도서관 이용횟수의 경우 2급은 한 달에 2~3회가 35명(25%), 한 달에 1회 이하가 25명(17.9%), 1주일에 1회가 25명(17.9%) 순으로 나타났고, 3급은 1주일에 1회가 10명(7.1%), 한 달에 2~3회가 10명(7.1%), 1주일에 2~3회가 5명(3.6%)로 나타났다. 4급은 한 달에 2~3회가 10명(7.1%)로 나타나  $\chi^2=30.03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보장구 착용여부에 따른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의 경우, 보청기 착용자는 한 달에 2~3회가 15명(10.7%), 1주일에 1회가 10명(10.7%), 한 달에 1회 이하가 10명(7.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공와우 수술자는 한 달에 2~3회가 30명(21.4%), 1주일에 1회가 10명(7.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보장구 미사용자는 1주일에 1회가 10명(7.1%), 한 달에 2~3회가 10명(7.1%), 한 달에 1회 이하가 10명(7.1%)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chi^2=32.495, p<.001$ 로 통계

<표 10>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횟수

(단위: 명)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		1주일에 2~3회	1주일에 1회	한달에 2~3회	한달에 1회 이하	1년에 1~2회	전혀이용하지 않음	$\chi^2(\rho)$
출신학교	농학교	5(3.6%)	15(10.7%)	15(10.7%)	15(10.7%)	0(0%)	0(0%)	14.500 (.013)
	일반학교	10(7.1%)	20(14.3%)	40(28.6%)	10(7.1%)	5(3.6%)	5(3.6%)	
	계	15	35	55	25	5	5	
장애등급	2급	10(7.1%)	25(17.9%)	35(25%)	25(17.9%)	5(3.6%)	5(3.6%)	30.032 (.001)
	3급	5(3.6%)	10(7.1%)	10(7.1%)	0(0%)	0(0%)	0(0%)	
	4급	0(0%)	0(0%)	10(7.1%)	0(0%)	0(0%)	0(0%)	
	계	15	35	55	25	5	5	
보장구	보청기	5(3.6%)	15(10.7%)	15(10.7%)	10(7.1%)	0(0%)	0(0%)	32.495 (.000)
	인공와우	5(3.6%)	10(7.1%)	30(21.4%)	5(3.6%)	5(3.6%)	0(0%)	
	보장구 미사용	5(3.6%)	10(7.1%)	10(7.1%)	10(7.1%)	0(0%)	5(3.6%)	
	계	15	35	55	25	5	5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구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4.2.3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 목적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과 같이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목적에 대해서 출신학교별 분류를 보면 농 학교 출신자는 정보수집이 30명(21.4%), 여가 시간 활용과 도서대출이 각 10명(7.1%)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교 출신자는 도서대출이 40명(28.6%), 열람실 이용이 30명(21.4%) 등의 나타나  $\chi^2=61.600$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추가적인 면담결과, 농학교 출신자의 경우 열람실 이용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농학교 출신자들의 문자에 대한 이해력 부족과 학습을 위한 대체자료 미흡과 연관이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등급별 이용목적은 2급의 경우 정보수집이 40명(28.6%), 도서대출이 35명(25%) 순으로 나타났고, 3급은 도서대출이 10명(7.1%),

열람실 이용이 10명(7.1%)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4급은 열람실이용, 도서대출 모두 각 5명(3.6%)로 나타나  $\chi^2=21.719$ ,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 면담 결과, 청각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에 대해서 거부감이 높으며, 청각장애 등급 즉 정도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른 이용목적은 보청기 착용자는 도서대출과 열람실 이용이 각 20명(14.3%)로 나타났고, 인공와우 수술자는 도서대출 25명(17.9%), 정보수집 15명(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장구 미사용자는 정보수집이 25명(1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목적은 동일하게 나타나  $\chi^2=55.884$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구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4.2.4 청각장애 대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1>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단위: 명)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도서대출	정보수집	열람실이용	여가시간활용	기타	$\chi^2(p)$
출신학교	농학교	10(7.1%)	30(21.4%)	0	10(7.1%)	0(0%)	61.600 (.000)
	일반학교	40(28.6%)	15(10.7%)	30(21.4%)	0(0%)	5(3.6%)	
	계	50	45	30	10	5	
장애등급	2급	35(25%)	40(28.6%)	15(10.7%)	10(7.1%)	5(3.6%)	21.719 (.005)
	3급	10(7.1%)	5(3.6%)	10(7.1%)	0(0%)	0(0%)	
	4급	5(3.6%)	0(0%)	5(3.6%)	0(0%)	0(0%)	
	계	50	45	30	10	5	
보장구	보청기	20(14.3%)	5(3.6%)	20(14.3%)	0(0%)	0(0%)	55.884 (.000)
	인공와우	25(17.9%)	15(10.7%)	5(3.6%)	5(3.6%)	5(3.6%)	
	보장구 미사용	5(3.6%)	25(17.9%)	5(3.6%)	5(3.6%)	5(3.6%)	
	계	50	45	30	10	10	

〈표 12〉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시간 불편	위치 불편	이용할 자료가 부족	최신 자료 부족	직원의 불친절	자료를 찾는 방법이 어려움	필요성 없음	기타	$\chi^2(p)$
출신 학교	농학교	0(0%)	20(14.3%)	5(3.6%)	5(3.6%)	0(0%)	5(3.6%)	10(7.1%)	5(3.6%)	24.630 (.000)
	일반 학교	5(3.6%)	15(10.7%)	15(10.7%)	10(7.1%)	0(0%)	0(0%)	20(14.3%)	25(17.9%)	
	계	5	35	20	15	0	5	30	30	
장애 등급	2급	5(3.6%)	25(17.9%)	5(3.6%)	15(10.7%)	0(0%)	5(3.6%)	30(21.4%)	20(14.3%)	54.754 (.000)
	3급	0(0%)	5(3.6%)	10(7.1%)	0(0%)	0(0%)	0(0%)	0(0%)	10(7.1%)	
	4급	0(0%)	5(3.6%)	5(3.6%)	0(0%)	0(0%)	0(0%)	0(0%)	0(0%)	
	계	5	35	20	15	0	5	30	30	
보장구	보청기	0(0%)	10(7.1%)	10(7.1%)	0(0%)	0(0%)	0(0%)	10(7.1%)	15(10.7%)	46.652 (.000)
	인공 와우	0(0%)	20(14.3%)	5(3.6%)	10(7.1%)	0(0%)	0(0%)	10(7.1%)	10(7.1%)	
	보장구 미사용	5(3.6%)	5(3.6%)	5(3.6%)	5(3.6%)	0(0%)	5(3.6%)	10(7.1%)	5(3.6%)	
	계	5	35	20	15	0	5	30	30	

〈표 12〉와 같이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출신학교별 분류를 보면 농학교 출신자의 경우 위치가 불편해서가 20명(14.3%), 필요성이 없어서가 10명(7.1%)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교 출신자의 경우는 필요성이 없어서가 20명(14.3%), 위치가 불편해서, 이용할 자료가 없어서가 각 15명(10.7%), 최신자료가 부족해서 10명(7.1%) 순으로 나타나  $\chi^2=24.630,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희윤(2013)의 장애대학생의 도서관 불만족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즉, 도서관 자료실 이용 시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용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장애등급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2급의 경우 필요성이 없어서가 30명(21.4%), 위치가 불편해서가 25명(17.9%) 순으로 나타났고, 3급은 이용할 자료 부족과 기타 의견이 각 10명(7.1%)씩 동일하게 나타났다. 4급은 위치

불편과 이용할 자료 부족이 각 5명(3.6%)로 나타나  $\chi^2=54.754,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른 이용목적은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위치 불편, 이용할 자료 부족, 필요성 없음이 각 10명(7.1%)로 나타났고, 인공와우 수술자는 위치불편이 20명(14.3%), 최신자료 부족과 필요성 없음이 각 10명(7.1%) 순으로 나타났다. 보장구 미사용자는 필요성 없음이 10명(7.1%), 그 외 이용시간 불편, 위치 불편 등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chi^2=46.65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구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 4.3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정보요구 대한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장애보장구

사용여부, 출신학교, 장애 등급에 따라서 최신 자료 확충, 도서관 이용자 교육홍보, 수화통역사 배치, 도서관 사이트(홈페이지) 개편, 열람 환경 개선 등의 도서관 이용을 위한 정보요구 차이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4.3.1 장애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른 도서관 정보 요구의 차이

장애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라 도서관 정보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3〉 참조).

장애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른 최신 자료 확충에 대한 정보요구의 차이는  $F=10.61$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é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의 결과를 보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미착용한 청각장애 대학생이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 대학생에 비해 최신자료

확충 욕구가 높았다.

장애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정보요구의 차이는  $F=28.75$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é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의 결과를 보면 인공와우 수술을 하거나 보장구를 미착용한 청각장애 대학생이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 대학생에 비해 이용자 교육·홍보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았다.

장애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른 수화통역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요구의 차이는  $F=9.73$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é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 결과를 보면 인공와우 수술을 하거나 보장구를 미착용한 청각장애 대학생이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 대학생에 비해 수화통역사 배치의 정보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른 도서관 사이트(홈페이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요구의

〈표 13〉 장애보장구 사용 여부에 따른 도서관 정보요구의 차이 결과

(단위: 명)

내용	구분	N	M	SD	F	Scheffé
최신자료 확충	보청기(a)	45	4.33	.64	10.61***	a,c>b
	인공와우(b)	55	4.00	.60		
	미착용(c)	45	4.63	.70		
이용자교육·홍보	보청기(a)	45	3.00	.95	28.75***	b,c>a
	인공와우(b)	55	4.9	.51		
	미착용(c)	45	4.13	.93		
수화통역사 배치	보청기(a)	45	2.78	1.41	9.73***	b,c>a
	인공와우(b)	55	3.55	1.08		
	미착용(c)	45	4.00	1.43		
도서관 홈페이지 (사이트)개편	보청기(a)	45	3.22	1.33	11.26***	c>a,b
	인공와우(b)	55	3.45	.66		
	미착용(c)	45	4.25	.17		
열람환경개선	보청기(a)	45	3.33	1.16	10.97***	c>a,b
	인공와우(b)	55	3.55	.78		
	미착용(c)	45	4.25	.84		

\*\*\*  $p<.001$

차이는  $F=11.26,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ffé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 결과를 보면 보장구 미착용 청각장애 대학생이 보청기 착용 및 인공와우 수술을 한 청각장애 대학생에 비해 도서관 사이트(홈페이지) 개편의 정보요구가 높았다.

장애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른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의 정보요구의 차이는  $F=10.97,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é검증을 통한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 여부는 보장구 미착용 청각장애 대학생이 보청기 착용 및 인공와우 수술을 한 청각장애 대학생에 비해 정보요구가 높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구가설 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4.3.2 출신학교에 따른 도서관 정보요구의 차이

출신학교에 따른 도서관 정보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출신학교별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홍보의 욕구차이는  $t=3.35,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농학교 출신자가 일반학교 출신자보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 면담결과, 이러한 결과는 농학교에서 도서관 이용 방법과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청각장애 대학생이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을 때 그들을 위한 별도의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 출신학교별 수화통역사 배치에 대한 정보요구의 차이는  $t=5.41,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농학교 출신자가 일반학교 출신자보다 수화통역사 배치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출신학교에 따른 최신자료 확충, 홈페이지(사이트) 개편, 열람환경 개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구가설 6)을 부분 지지하는 결과이다.

4.3.3 장애등급에 따른 도서관 정보요구의 차이

장애등급의 차이에 따라 도서관 정보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 출신학교에 따른 도서관 정보요구의 차이 결과

내용	구분	N	M	SD	t
최신자료 확충	농학교	50	4.10	.70	-2.37
	일반학교	90	4.39	.68	
이용자교육·홍보	농학교	50	4.10	1.23	3.35**
	일반학교	90	3.56	.68	
수화통역사 배치	농학교	50	4.20	1.26	5.41***
	일반학교	90	3.00	1.25	
도서관 홈페이지 (사이트)개편	농학교	50	3.70	1.43	.73
	일반학교	90	3.56	0.90	
열람환경개선	농학교	50	3.90	.95	1.96
	일반학교	90	3.56	1.01	

\*\*  $p<.01$ , \*\*\*  $p<.001$

〈표 15〉 장애등급에 따른 도서관 정보요구에 대한 차이 결과

내용	구분	N	M	SD	F	Scheffe
최신자료 확충	2급(a)	105	4.29	.703	.648	-
	3급(b)	25	4.20	.764		
	4급(c)	10	4.50	.527		
이용자교육·홍보	2급(a)	105	3.86	.994	5.50**	c>b
	3급(b)	25	3.20	.64		
	4급(c)	10	4.00	.000		
수화통역사 배치	2급(a)	105	3.48	1.37	.661	-
	3급(b)	25	3.20	1.63		
	4급(c)	10	3.50	.527		
도서관 홈페이지 (사이트)개편	2급(a)	105	3.67	1.08	2.48	-
	3급(b)	25	3.20	1.35		
	4급(c)	10	5.00	0		
열람환경개선	2급(a)	105	3.86	.89	13.88***	c>b
	3급(b)	25	2.80	1.19		
	4급(c)	10	4.00	0		

\*\*  $p < .01$ , \*\*\*  $p < .001$ 

〈표 15〉와 같이 장애등급에 따른 도서관 정보요구의 차이에서, 장애등급별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홍보 대한 정보요구의 차이는  $F=5.50$ ,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é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의 결과를 보면 4급이 3급에 비해 도서관 이용자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았다. 장애등급별 열람환경 개선에 대한 정보요구의 차이는  $F=13.88$ ,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é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의 결과를 보면 3급이 4급에 비해 열람환경 개선에 대한 도서관 정보요구가 높았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장애등급에 따른 최신 자료 확충, 수화통역사, 사이트개편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구가설 7)을 부분 지지하는 결과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업수행과 일상생활에서 보다 나은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획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정보수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차이는 출신학교, 장애등급, 보장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학교 출신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일반학교 출신자는 주변의 정보원 부족을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2급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는 정보기술 및 능력부족을, 3급은 정

보를 찾을 시간 부족, 4급은 정보 제공처 모름을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보장구 착용여부에 따라 보청기 착용 시 주변의 정보원 부족,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인공와우 수술자의 경우 정보기술 및 능력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장구 미착용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기술 및 능력 부족을 꼽았다.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횟수에 대한 차이는 출신학교, 장애등급, 보장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학교 출신자가 농학교 출신자보다 도서관 이용 횟수가 많았으며, 장애등급에 따른 도서관 이용 횟수는 2급의 경우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이하 등 유사하게 빈도가 나타났다. 보장구 착용 여부는 인공와우 수술한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목적에 대한 차이는 출신학교, 장애등급, 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학교 출신자는 정보수집과 여가시간 활용으로 일반학교 출신자는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높게 꼽았다. 장애등급에 따른 도서관 이용은 2급의 경우 정보수집, 3급은 도서대출, 4급은 열람실 이용 순으로 꼽았다. 이것은 청각장애의 정도에 따라 도서관의 정보자료 이용과 시설활용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보장구 착용 여부는 보청기 착용 및 인공와우 수술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보장구 미착용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 정보 수집을 도서관의 주요 이용 목적이 라고 답하였다.

넷째,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

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출신학교, 장애등급, 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학교 출신자, 청각장애 3급, 보청기 착용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 도서관의 위치가 불편해서, 일반학교 출신자 및 청각장애 2급, 보장구 미착용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는 도서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앞으로 도서관이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학업에 필요한 기관으로 보다 편리하고 다가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장구 착용 여부에 따라 최신자료 확충,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홍보, 수화통역사 배치 필요, 도서관 사이트(홈페이지) 개편,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 등의 도서관 정보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신자료 확충은 보청기 착용 또는 보장구 미착용 청각장애 대학생이 이용자 교육 및 홍보는 인공와우 수술 또는 보장구 미착용한 청각장애 대학생이 수화통역사 배치는 인공와우 수술 또는 보장구 미착용 청각장애 대학생이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및 열람환경 개선은 보장구 미착용 청각장애 대학생의 정보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출신학교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홍보, 수화통역사 배치 필요에 대한 도서관 정보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학교 출신의 청각장애 대학생이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홍보, 수화통역사 배치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았다.

일곱 번째, 장애등급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홍보, 열람환경 개선에 대한 도서관 정보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각장애 4급이 3급에 비해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았으며, 3급

이 4급에 비해 열람환경 개선에 대한 도서관 정보요구가 높았다.

이번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에 관한 다양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정보추구 행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확대가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차별을 장애 차별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랑가라단의 도서관 제5법칙 중 두 번째가 '모든 책은 독자에게로(Every books its readers)'이다. 과연 도서관이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장애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도서관 담당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8).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계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3).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국립특수교육원.
- 김영옥 (2009). 청각장애아동 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미래창조과학부 (2014). 2013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박정식 (2013). 고등교육 환경에서의 전환활동이 발달장애대학생의 직업능력과 학업능력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15(2), 81-103.
- 보건복지부 (2013). 청각·언어장애인(농아인)의 의사소통 접근성 강화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육정달 (2005). 국내 청각장애관련 학위논문 현황분석. 특수교육저널, 6(1), 37-55.
- 육정달, 박정식 (2014). 청각장애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3), 155-176.
- 윤중오, 김민정 (2013). 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영역별 교수-학습 모형 개발. 장애인과 고용, 23(2), 81-118.
- 윤희윤 (2013). 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5-24.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005>
- 이준우 (2009).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방안.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보), 64(1), 28-52.
- 조혜전, 정연경 (2012). 국내 공공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3(2), 223-244. <http://dx.doi.org/10.1633/JIM.2012.43.2.22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2014 장애인 통계. 경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와타나베 오사무(渡辺 修) (2012). 聴覚障害者への図書館サービス. Retrieved from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8697423\\_po\\_h24kouza\\_09.pdf?contentNo=17](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8697423_po_h24kouza_09.pdf?contentNo=17)

&alternativeNo =

- ASCLA (1996).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American Deaf Community. Chicago: ASCLA. Retrieved from <http://www.ala.org/ascla/asclaourassoc/asclasections/lssps/lspdhhf/lspdhhf>
- ASHA(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Retrieved from <http://www.asha.org/public/hearing/What-is-Hearing-Loss/>
- IFLA (2000).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Deaf People (2nd Edition). Retrieved from <http://www.ifla.org/files/assets/hq/publications/professional-report/62.pdf>
- Moores, D. F. (1996). Education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Deafness and hearing loss. Retrieved from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00/en/>

<p>•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p>
--

- Cho, Hye-Chon, & Chung, Yeon-Kyoung (2012). A study on improvements of guidelines for public library service to deaf people in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3(2), 223-244. <http://dx.doi.org/10.1633/JIM.2012.43.2.223>
- Kim, Young-Youk (2009). Education the deaf. Seoul: Hakjisa.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EDI (2014). 2014 Statistics disabled in korea. Kyongki-do: KEAD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2009). Dictionary of special education terminology. Seoul: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Lee, Jun-Woo (2009). Study on the collecting and preserving newspapers in the digital era. *DOSEOGWAN*, 64(1), 28-52.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The study on how to strengthen accessibility communication for the deaf & hard of hearing.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4). 2013 Survey information divide for disable person.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8). Mid-and long 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information divide of deaf people. Final Repor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3). A study main library service model for deaf people. Final

- Repor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Ok, Jung-Dal (2005). An analysis of dissertations related to hearing impairment: Focusing on the graduation schools of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1), 37-55.
- Ok, Jung-Dal, & Park, Jung-Sik (2014). A study on perception of occupa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3), 155-176.
- Park, Jung-Sik (2013). The effects of transition activities to promote vocational and academic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higher education setting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5(2), 81-103.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2011 A research on the disabled in Korea. Seoul: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 Hee-Yoon (2013). Analysis of the library servic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5-24.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005>
- Yoon, Joong-O, & Kim, Min-jeong (2013).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odels based on vocational training objectives for the deaf. *Disability & Employment*, 23(2), 81-118.